

## 17. 자동차 도장수리공에서 발생한 재생불량성빈혈

성별 남 나이 59세 직종 자동차 수리도장 업무관련성 높음

**1. 개요:** 근로자 박○○는 30여 년간 자동차 수리작업 등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던 중 2004년 7월 6일 좌이 돌발성난청으로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혈액검사에서 범혈구감소증 발견되어 골수검사 시행 후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받았다

**2. 작업환경:** 박○○는 약 30년간 도장작업(자동차 수리 도장작업 25년)에 종사하였는데 현재 도장작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료와 신너 등에서는 벤젠이 1%미만(용량비)으로 검출되었지만, 문헌 등을 통하여 볼 때 과거에 사용한 도료와 신너에는 벤젠이 비교적 낮지 않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도 20년 이상 도장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서는 현재 노출되는 벤젠 농도가 매우 낮아도 골수이형성증후군(30년간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한 한○○씨, 1999년 인정), 백혈병(약 20년간 건설업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한 손○○씨, 2004년 인정) 등의 혈액질환을 도장작업 중 노출된 벤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직업병으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. 따라서 박○○도 최근에는 벤젠이 불순물로 소량 포함된 도료 등에 노출되었지만, 과거에는 재생불량성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.

**3. 의학적 소견:** 박○○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1986년 이전 B형간염이 발생하였고 1989년경부터 간경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, 이즈음부터 혈소판 및 백혈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있었다.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하였는데, 간경화, 비장종대 소견이 있었다. 2004년 7월 골수검사 소견은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되었다.

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문답서에 주2회 소주 1/2-1병정도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간경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. 담배는 태우지 않았다.

**4. 결론:**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박○○은

- ① 벤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재생불량성빈혈로 골수검사에 의해 확진되었고,
- ② 근로자가 1970년 이전부터 약 30년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도료와 신너 등에 포함된 벤젠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인정되고,
- ③ 근로자가 재생불량성빈혈의 한 가지 원인으로 알려진 간염이 있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역학적 연구결과에 비추어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이 근로자의 만성 B형간염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므로,

박○○의 재생불량성빈혈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.